

#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분석: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이철주<sup>1</sup> | 이경주<sup>2\*</sup>

<sup>1</sup> 연구책임: 사회과학 콘텐츠  
프로젝트 대표

<sup>2</sup>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 교신저자: 이경주  
(drkj4094@dongjak.go.kr)

## 초록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인식조사와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결합한 혼합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5년 5월 수도권 소재 K대학교 재학생 62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개방형 주관식 응답에 대해 단어 빈도 분석과 워드 클라우드 분석, 2-그램 분석 등 다양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와 장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반적으로 제약, 차별, 우려, 지원 필요성, 권리 보장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장애 여성은 장애와 젠더가 교차된 다중적 소수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여전히 능력과 정상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경향이 강했으나, 동시에 기존 제도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다층적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담론도 함께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 여성을 단순한 보호나 지원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정책 관점을 넘어, 재생산권과 시민권의 주체로 재위치시키는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다층적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회 담론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인권 기반의 복지정책 및 인식 개선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용어:** 장애 여성, 텍스트마이닝, 다중적 소수자, 교차성, 재생산권

##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장애와 젠더가 교차하는 차별, 접근성, 재생산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기존 연구는 주로 당사자 경험과 제도적 배제에 주목했지만, 일반 사회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부족했다. 이에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개방형 응답을 텍스트마이닝으로 분석해,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권리 인식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대학생들은 장애와 장애 여성을 '제약', '차별', '약자', '불편함', '보호', '지원 필요성'과 연결해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장애 여성은 장애와 젠더가 중첩된 다중적 소수자로 이해되었으며, 임신과 출산 역시 '유전', '양육', '우려' 등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자유', '존중', '권리 보장', '포용적 정책' 같은 표현도 함께 나타나, 권리 중심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보호나 동정이 아니라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저출산 정책에서도 장애 여성을 출산의 수단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아울러 인식개선 교육 역시 배려 수준을 넘어 자기결정권, 다층적 차별, 정상가족 프레임의 문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2024년도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RS-2024-004 004406). 또한 분석 과정에서 국립재활원 여성재활과 김인혜 연구원의 도움을 받았다.

IRB No. NRC-2024-04-017

- 투고일: 2026. 01. 23.
- 수정일: 2026. 04. 08.
- 게재확정일: 2026. 05. 18.

## I. 서론

장애가 있는 여성(「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를 가진 여성을 의미하며, 이하 ‘장애 여성’이라 함)의 임신과 출산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건을 넘어, 사회 구조적 제약과 보건의로 접근성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대에는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배제와 낙인 경험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재생산권과 정책적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담론 중심의 연구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 과정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임상적 건강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기존의 전국 단위 인구 기반 연구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장애 여성의 분만 건수는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제왕 절개, 임신성 고혈압, 조산, 저체중 출산 등 주요 주산기 합병증의 발생률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보고되었다(Shin et al., 2020).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장애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0.10에서 0.05로 급격히 하락하여, 같은 기간 전체 여성의 합계출산율 감소폭(0.98→0.72)에 비해 훨씬 가파른 감소 양상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이경주, 2024). 이러한 결과는 장애 여성의 출산이 사회적 낙인이나 문화적 배제의 문제를 넘어, 실질적인 건강 위험과 구조적 불평등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러한 출산 감소 및 고령화 추세와 대비되게,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자료 기반 연구(Lee et al., 2026)에서 기록된 모성 이환률은 연구 기간 전반에 걸쳐 장애 여성에서 비장애 여성보다 현저히 낮게 관찰되는 역설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격차는 약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지속되었으며, 특히 산전 및 분만기 이환의 경우 장애 여성에서 비장애 여성 대비 수 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낮은 수준으로 기록되었다. 반면, 장애 여성에서는 전체 이환 중 산후기 이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 여성의 임상적 부담이 실제로 낮다는 의미라기보다, 의료 이용 양상, 진단 포착의 차이, 그리고 출산에 이른 집단이 상대적으로 선별된 집단일 가능성(healthy mother effect)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종합하면, 장애 여성의 출산 감소와 출산 연령의 고령화, 그리고 낮게 기록된 모성 이환률은 상호 모순된 결과가 아니라, 보건의로 접근성과 구조적 제약이 누적된 환경 속에서 출산이 점점 더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결된 지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는 복지국가 담론 속에서도 장애 여성이 여전히 다층적 소외와 구조적 불평등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단순한 권리 선언을 넘어 실제 건강 결과와 의료 접근 격차를 포괄하는 근거 기반 정책 설계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현대 복지국가 체계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특정 집단은 구조적 소외와 다층적인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장애 여성은 젠더, 신체적 조건, 가족구성 형태라는 복합적 정체성이 교차하며 차별을 중첩적으로 경험하는 다중적 소수자(multiple minority)<sup>1)</sup>라고 할 수 있다(강방글, 이영선, 2013; 배경민, 2019). 이들은 공공 담론에서 자주 배제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호명되며, 정책 수혜집단으로서조차 일관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취약한 위치에 있게 됨으로써 재생산과 출산, 돌봄에 대한 ‘정상성’ 기준에서 배제된 존재들로 인식되는 등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마주하곤 한다(주유선 외, 2019). 예를 들어,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출산이나 양육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돌봄의 수혜자’ 또는 ‘무(無)성적 존재로 간주된다(이희연, 2007; 하금철, 2014). 이러한 시선은 이들이 현실에서 의료 접근을 제한받거나, 자녀 양육권에서 배제되거나, 복지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실질적 권리가 제약받는 현실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단지 개인의 편견이 아니라, 정책 수립과 자원 배분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담론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이다.

1) 다중적 소수자는 다양한 정체성이 겹쳐서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성별·인종·계층·성적 지향·장애 등 여러 소수자 정체성을 동시에 가진 경우를 말한다(Crenshaw, 1989, 1991).

기존 선행연구는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 경험, 재생산권 침해, 낙인과 차별을 주로 질적 인터뷰나 사례 중심으로 조명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당사자의 경험 세계와 제도적 배제를 심층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반면 이 연구는 미래 정책 수용자이자 형성 주체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어떤 핵심 단어, 의미 연결, 정서 구조로 표출되는지를 텍스트마이닝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즉, 이 연구는 당사자 경험 연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육아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이 일반 인식 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구조적으로 가시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sup>2)</sup>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장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미래 정책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대학생 집단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대학생은 향후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사회 인식을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주체이므로, 이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 수용성과 사회문화적 변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대학생 집단에서 형성되는 담론은 장애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유지 또는 해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집단은 ‘장애’와 ‘장애 여성’을 어떠한 핵심어와 정서 구조를 통해 인식하고 있으며, 두 인식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둘째, 대학생 집단은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어떠한 의미망 속에서 이해하며, 그 인식은 양육·육아 가능성, 유전, 정상성, 자기 결정권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셋째, 이러한 인식 결과는 장애 여성을 다중적 정책대상집단으로 호명하는 사회 담론의 구조를 어떻게 보여주며, 그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개방형 설문자료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응답자의 감정 구조와 언어적 편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감성 분석, 단어 빈도 분석, 토픽 모델링 등의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다중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는지를 검토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다중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 담론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권 기반 정책 설계와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나아가 향후 정책 설계 및 인권 기반 복지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실증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 1. 사회적 재생산과 정상가족 프레임 속에서 장애 여성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정은 ‘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n)과 ‘정상가족’이라는 논의와 맞닿아 있다. 사회적 재생산 이론은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여성의 돌봄, 출산, 가사노동 등 생명 유지 및 사회 재생산을 위한 노동이 어떻게 비가시화되고 저평가되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Federici, 2011; Fraser, 2023). 다음 세대의 생존과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돌봄, 출산, 교육 등)은 주로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고, 사회적으로는 ‘비가시적 노동’으로 취급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Federici(2011)는 여성의 몸과 노동이 근대 자본주의 축적 과정에서 어떻게 통제되고 착취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였으며, Fraser(2023)는 이러한 노동이 경제적 생산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무급’, ‘비정상’이라는 범주로 분류되며 체계

2) 이 연구는 제목과 중심 질문에서 ‘임신과 출산’을 전면해 두고 있으나, 실제 사회 인식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곧바로 양육 가능성, 육아 부담, 가족구성원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으로 확장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장애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가’, ‘양육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분석의 직접 대상은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으로 설정하되, 그 인식이 실제로는 양육과 육아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반하는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임신·출산·육아 전반의 담론 구조를 함께 읽고자 한다.

적으로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장애 여성은 '재생산 불가' 혹은 '비효율적 재생산의 주체'로 간주되며, 사회의 기대에서 벗어난 존재로 낙인찍힌다. 이들의 출산은 국가의 인구정책과 모순되거나 부담으로 인식되어 정책적 지원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장애 여성은 이 재생산 노동 수행에서조차 '적격한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다. 장애 여성은 돌봄의 객체로 간주되어 이들이 출산·양육의 주체가 되는 것을 '예외적 상황'으로 처리한다. 이는 곧 자본주의 복지국가가 설정한 재생산의 규범에서 이들을 이탈자로 만들며, 이들의 재생산 노동은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정상가족과 생명정치(biopolitics)는 국가가 개인의 삶과 신체, 재생산 능력을 어떻게 규율하고 관리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권력의 작용이 단순히 법적·물리적 통제에서 벗어나, 개인의 신체와 생명을 관리하고 조직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으며, "죽게 하지 않고 살게 하는 권력"으로서 생명정치를 정의하면서, 인구 전체의 건강, 재생산, 위생 등을 관리하는 제도가 근대 국가 권력의 핵심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Foucault, 2020). 특히 출산, 양육, 돌봄의 권한을 특정 집단(결혼한 이성애자 여성 등)에게만 허용하는 사회적 구조는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정상' 범주에서 배제하고, 국가 권력이 이들의 생식 활동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들은 때때로 의료시스템에서 진료 거부나 낙태 권유, 정책 수혜 배제 등으로 재생산권을 침해받는 등 재생산의 주체는 국가와 사회가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전환된다(Foucault, 2012, 2020).

장애 여성은 전통적인 가족구성과 성 역할 규범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지향하는 '정상적인 생명 관리'의 범주 밖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출산·양육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며, 국가 정책에서도 수용되기보다는 배제되거나 침묵 당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국가는 특정 인구 집단의 삶을 보존하거나, 그 반대로 생명정치적 관리를 통해 주변부로 밀어낼 권력을 갖음으로써 장애 여성을 단지 문화적 낙인에 두도록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보건의 시스템 등 생명정치적 기제를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제도화한다(Gans, 1995; Gustafson, 2011).

이러한 논의는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사회 인식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불편함', '결함', '제약', '보호', '정상 가족', '유전'과 같은 언어를 통해 재생산되는 규범적 판단 구조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Yang et al., 2007; Wacquant, 2009). 따라서 이 연구의 워딩 분석에서는 장애 여성이 출산과 양육의 주체로 호명되는지, 아니면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 위치 지워지는지를 주요 분석 관점으로 삼는다.

## 2. 다중적 정책대상집단으로서 장애 여성

교차성 이론은 젠더, 장애, 계층, 인종, 혼인 여부 등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이 겹칠 때 발생하는 복합적 차별을 설명한다. 예컨대 장애 여성이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단일한 '여성', '장애인' 범주보다 더 심화된 낙인과 배제를 경험하게 되며, 단편적 복지정책으로는 이러한 중첩된 불평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Crenshaw, 1989, 1991). Crenshaw(1989, 1991)는 이를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라고 설명하면서 젠더·인종·계층·장애 등의 사회적 정체성이 단일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차하며 복합적인 차별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흑인 여성에 대한 차별이 흑인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차별 구조가 중첩되면서 고유한 억압 형태를 만들어내는 등 사회적 범주 간 '중첩'은 단순한 합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배제와 낙인을 생산한다.

장애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정책 설계에서 두 집단의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지 못하고, 오히려 '중복 차별'이라는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정책은 여성의 재생산권을 고려하지 않으며, 모자보건정책은 장애를 가진 여성의 임신을 배제하거나 위험 요소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정책적 무감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차성 없는 정책의 경우 가장 취약한 집단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Mac-Seing et al., 2020). 또한, 아동복지 서비스와 장애 지원체계는 별도로 운영되어, 중첩된 문제를 가진 장애 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이 단절됨으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지능 발달 장애 등이 있는 여성은 아동학대나 방치 의혹으로 공식 시스템에 더 자주 개입되고 종종 부적절하거나 충분치 않은 서비스만 받게 됨으로써 장애 여성과 그 자녀가 이중적인 제도적 취약성을 겪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LaLiberte & Lightfoot, 2013). 특히 교차성 이론은 ‘약자’, ‘이중 차별’, ‘사회적 취약성’, ‘성별’, ‘중첩과 같은 표현이 단순한 동정의 언어가 아니라, 장애와 젠더의 교차가 만들어내는 독자적 차별 구조를 드러내는 징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장애 여성 관련 응답에서 나타나는 반복 워딩을 통해 교차적 배제와 정책 사각지대 인식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표출되는지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 3. 선행연구 동향 및 텍스트 마이닝 방법의 필요성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연구는 그간 다양한 차원과 내용에서 이루어져 왔다.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sup>3)</sup>과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 2000년대에는 ‘어린이(children)’, ‘조산(preterm)’, ‘위험(risk)’ 등의 주제 및 키워드와 관련한 연구, 2010년대에는 ‘위험(risk)’, ‘조산(preterm)’, ‘건강(health)’ 등의 주제 및 키워드와 관련한 연구, 2020년대에는 ‘건강(health)’, ‘위험(risk)’, ‘임신(pregnancy)’, ‘조산(preterm)’ 등의 주제 및 키워드와 관련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건의료 맥락의 연구가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Gill(1996)은 낙인이 이성애 중심의 연애 문화에도 침투되어 장애 여성에게 ‘연애와 결혼의 주체성을 박탈할 수 있고 많은 장애 여성들이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주변의 지속적 언어적 폭력과 사회회의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Shakespeare(2006)는 장애 여성의 경우, ‘성적 권리’ 및 ‘재생산권’에서 지속적으로 침해받는 집단이며, 성에 대한 ‘과잉보호’ 또는 ‘성적 무지’ 프레임이 낙인의 중심축을 형성하여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의 피임-출산-성적 파트너십에 대한 사회적 논의 자체가 배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국내의 경우 2000년대에는 ‘예산’, ‘경험’, ‘차별’ 등의 주제 및 키워드와 관련한 연구, 2010년대에는 ‘출산’, ‘자녀’, ‘사회’, ‘차별’ 등의 주제 및 키워드와 관련한 연구, 2020년대에는 ‘지원’, ‘출산’, ‘권리’, ‘사회’ 등의 주제 및 키워드와 관련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장애 여성에 대한 보건의료 맥락의 연구보다는 사회 인식과 복지 맥락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황지성(2011)은 선택과 권리에 대한 요구를 넘어, 그것이 기반한 재생산 정치의 지형을 통합적으로 성찰해 재생산권 논의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유리, 김정석(2020)은 장애 여성의 이성 관계와 여성성은 침묵과 통제를 강요받고, 이는 무성적 존재로서의 낙인, 사랑과 연애에 대한 거절, 손상된 몸에 대한 왜곡과 강박, 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거부 등으로 드러나면서 장애 여성들은 삶의 주체로서 그들만의 여성성을 발현하고 사랑을 실현하려는 욕구,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의 경우 질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다루어 왔는데, 연구 방법의 특성상 연구참여자를 소수로 할 수밖에 없어 비교적 다수의 인원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비교적 많은 인원의 담론 속에 숨겨진 편견, 고정관념, 정서적 반응을 구조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고, 사회적 낙인의 기제와 재생산권에 대한 여론 지형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특히, 정책대상집단으로서 장애 여성의 교차성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표현되고, 낙인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낙인의 언어적 기호와 반복 구조를 탐지하고, 어떤 언어가 낙인의 중심축이 되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기존 행정통계

3) 국내외 연구에서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문헌을 수집하여 주요 키워드의 출현 양상과 주제 흐름을 파악하고자 2025년(단일조사, 1회성)에 2000년대 이후 국내(RISS: 74편)와 해외(Pubmed: 421편)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반 정량적 문헌 분석(Text Mining-based Quantitative Literatur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나 공식 보고서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제도 밖의 목소리나 비가시적 차별에 대해 포착해 보고자 한다. 즉, 선행연구가 장애 여성의 삶의 경험을 중심으로 낙인과 통제의 실체를 보여주었다면, 이 연구는 ‘약자’, ‘차별’, ‘보호’, ‘유전’, ‘정상 가족’, ‘권리 보장’과 같은 표현들이 어떠한 담론 구조를 이루는지를 정량적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낙인이 작동하는 언어적 메커니즘을 가시화하고자 한다. 또한 당사자 경험 연구를 보완하여, 미래 정책의 수용자이자 형성 주체인 대학생 집단의 인식 지형을 분석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 4. 이 연구를 위한 논의구조

이상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은 다음의 네 가지 논의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장애를 불편함·결함·제약의 언어로 표상하며 보호와 배려의 대상으로 보는 결핍/시혜 담론이다. 둘째, 장애 여성을 ‘약자 중의 약자’, ‘사회적 취약성’의 존재로 호명하면서도 주체성보다 보호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교차적 취약성 및 대상화 담론이다. 셋째, 장애 여성의 출산을 ‘유전’, ‘아이 정상적’, ‘양육 가능성’, ‘정상 가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정상성/우생학적 판단 담론이다. 넷째, 기존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권리 보장’, ‘실질적’, ‘포용적’, ‘지원이 이루어져야와 같은 표현을 통해 권리 기반 지원체계를 요구하는 권리·지원 전환 담론이다. 이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도출된 핵심 워딩과 의미 연결 구조를 바탕으로, 대학생 집단의 응답이 이 네 가지 담론 축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질적으로 제기되어 온 장애 여성의 낙인, 무성화, 과잉보호, 재생산권 제한, 정책 사각지대 문제가 오늘날 사회 인식의 언어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생산되거나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표본 및 자료 수집 방법

이 연구는 수도권 소재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62명(여성 34명, 남성 28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2025년 5월에 실시한 개방형 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설문 참여 시점에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으로 구성되었고, 자료수집은 수업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응답 누락이 많거나 분석이 어려운 불성실 응답은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응답을 바탕으로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개방형 주관식 설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은 “장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장애 여성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 여성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의 네 가지 문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서술하였다. 모든 응답은 메모지에 수기로 작성한 후 회수되었으며, 이후 분석을 위해 디지털 텍스트 자료로 변환되었다.

이 연구는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으며(IRB No. NRC-2024-04-017), 연구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연구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다. 모든 응답자는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로 참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화 처리 후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 2. 데이터 전처리 및 자료 분석방법과 도구

수집된 개방형 설문 응답은 텍스트마이닝 분석에 적합하도록 단계적인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우선 수기로 작성된 응답지를 디지털 텍스트 형식으로 전환한 후, 분석 대상 텍스트를 정제하였다. 이후 KoNLPy 라이브러리의 Okt(Open Korean Text)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응답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분절하였으며, 분석의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품사를 포함하여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였다.

형태소 분석 결과 중 의미 해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단어는 불용어(stopwords)로 정의하여 제거하였다. 불용어 제거는 텍스트마이닝 분석에서 핵심 개념 추출의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 잡음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Miner et al., 2012; Cambria & White, 2014). 본 연구에서는 ①의미적 정보가 거의 없는 고빈도 기능어(예: ‘것’, ‘수’, ‘등’)와 ②설문 문항에 이미 포함되어 분석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단어(예: ‘장애 여성’, ‘한국’, ‘사회’, ‘단어’ 등)를 불용어로 설정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전처리가 완료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단어 수준의 빈도 분석(word frequency analysis)과 2-그램 분석을 수행하였다. 단어 빈도 분석에서는 각 단어의 출현 빈도를 집계하여 상위 20개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주요 개념과 주제를 파악하였다. 2-그램 분석은 응답 문장 내에서 인접한 두 단어 조합의 출현 빈도를 산출함으로써, 단일 단어 분석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의미 단위의 맥락과 연관 구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단어 빈도 분석 결과는 단어 출현 빈도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화한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로 시각화하여, 주요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정서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감성 분석에는 KNU 감성사전(KNU Korean Sentiment Lexicon)을 활용한 사전 기반 접근법을 적용하였으며, 각 단어의 감성 극성(긍정, 중립, 부정)을 판별한 후 응답 문장 단위로 감성 점수를 합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항별 감성 레이블의 분포를 산출하여 응답자들의 태도와 정서적 뉘앙스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단어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TF-IDF(단어 빈도-역문서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미래 정책의 주요 수요자이자 형성 주제로 간주되는 대학생 집단의 경우 장애와 젠더의 교차성을 반영하여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성별 간 단어 빈도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sup>4)</sup> 모든 분석은 문항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전체 분석 과정은 Python 3.13.3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 IV. 연구 결과

### 1.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 및 양육에 대한 단어빈도 및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장애 여성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 단어 출현 빈도에 따른 최빈 명사를 추출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장애 여성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차별’, ‘약자’, ‘불편함’, ‘결함’, ‘제약’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하였다.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별 최빈 명사를 추려 각 단어별 빈도수에 따라 정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4) 연구에서 성별 비교를 추가로 실시한 이유는 장애 여성이라는 연구 대상 자체가 젠더와 장애의 교차성을 핵심 문제의식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생 집단 내에서 성별이 인식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수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연구는 개방형 주관식 응답을 활용한 탐색적 텍스트마이닝 연구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조사 시점에 장애인 접촉 경험, 장애 관련 교육 수강 여부, 가족 내 장애인 유무, 전공 계열 등 보다 다양한 배경변수를 함께 수집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성별 비교 분석은 설명변수의 우열을 검증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 응답 답변의 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제한적 분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결과



먼저, “장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라는 ‘질문 1’에 대한 응답의 경우,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불편함’, ‘제약’, ‘차별’, ‘배려’로, 각각 7회씩 등장하며 전체 응답 단어 중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결함’, ‘약자’, ‘편견’, ‘소외’, ‘장벽’ 등, 장애를 사회적 제약이나 단절된 존재로 인식하는 단어들이 상위에 다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배려’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 시혜적 관점을 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어 분포는 응답자들이 장애를 개인의 다양성보다는, ‘불완전함’이나 ‘사회적 불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여전히 기능 중심적·결핍 중심적 장애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추론하게 해준다.

둘째, “장애 여성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라는 ‘질문 2’에 대한 응답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는 ‘약자’로, 총 19회 언급되며 전체 응답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수의 응답에서 “장애이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약자 중의 약자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차별’, ‘출산’, ‘결혼’, ‘도움’, ‘성별’, ‘이미지’ 등의 단어가 다수 등장했는데, 이는 ‘장애 여성’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생식과 젠더를 둘러싼 고정관념 또는 보호주의적 시선이 함께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중첩’, ‘상대적’, ‘정체성’ 같은 단어는 일부 응답자들이 교차적 관점에서 장애 여성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 여성’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여러 겹의 불편함’, ‘복합적 소외’ 등의 응답이 많았고,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와 젠더가 결합될 때의 복합 차별 인식이 명확히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1.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최빈 단어 목록 및 빈도 수

질문 1. 장애하면 떠오르는 것들		질문 2. 장애 여성하면 떠오르는 것들		질문 3.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각		질문 4.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	
최빈 단어 목록	빈도 수	최빈 단어 목록	빈도 수	최빈 단어 목록	빈도 수	최빈 단어 목록	빈도 수
불편함	7	약자	19	아이	30	출생	38
제약	7	차별	11	유전	9	출산	35
차별	7	출산	8	지원	9	지원	19
배려	7	도움	5	비장애인	8	아이	16
결함	6	성별	5	양육	8	임신	14
약자	5	이미지	5	도움	8	도움	6
편견	4	취약	4	자유	7	출산율	5
소외	3	결혼	2	부부	5	배제	5
장벽	3	중첩	2	의지	4	비장애인	5
개인	3	정체성	2	우려	4	양육	4
배제	3	소외	2	키움	4	부모	4
차별적	3	상대적	2	긍정적	4	가정	3
도움	3	제약	2	부정적	4	편견	3
불편한	3	결함	2	가정	4	보호	3
-	-	보호	2	존중	4	육아	3

셋째,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 3’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아이’로, 총 30회 등장하며 전체 단어 중 약 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 ‘유전’, ‘지원’, ‘비장애인’, ‘양육’, ‘도움’, ‘자유’ 등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육아의 어려움’, ‘유전 가능성’,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과 연결짓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전’, ‘우려’, ‘부정적’과 같은 단어의 반복은 장애 여성의 출산에 대해 생물학적 전이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거나,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추론하게 해준다. 물론, ‘자유’, ‘존중’, ‘의지’, ‘긍정적’ 등의 단어들도 함께 언급되고 있어 일부 응답자들의 경우, 출산에 대한 장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권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이처럼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는 긍정적 시선과 우려나 편견에서 비롯된 부정적 시선이 혼재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장애 여성의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라는 시선과 ‘사회적 판단’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선이 동시에 남아 있음을 생각하게 해준다.

넷째,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 여성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 4’에 대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단어는 ‘출생’으로 총 38회 등장하며, 전체 단어 중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출산’, ‘지원’, ‘아이’, ‘임신’, ‘양육’ 등의 단어가 상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응답자들이 장애 여성에 대한 출산 관련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임신과 양육 전반에 걸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실질적’, ‘맞춤형’, ‘보호’, ‘편견’, ‘배제’ 등의 단어가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장애 여성의 실제적 상황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장애인’, ‘부모’, ‘가정’과 같은 단어는 비교적 보편적 맥락에서 출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장애 여성을 특정한 배려 대상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시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장애 여성의 출산에 대해 제도적 지원의 강화와 함께, 편견 없는 환경 조성,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대책, 그리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sup>5)</sup>

5) 이 연구의 직접 질문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것이지만, 응답자들의 서술에서는 ‘아이’, ‘양육’, ‘육아’, ‘부모’, ‘가정’ 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 인식이 실제로는 양육 가능성과 육아 부담에 대한 사회적 판단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2-gram 분석 결과

응답자들이 특정 개념들을 어떻게 연결해 사고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응답 문장 내에서 인접한 두 단어 조합의 출현 빈도를 산출하고 주요 의미 단위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2-gram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질문 1: ‘장애’ 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한 응답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를 단순한 신체적 결손이 아닌, 정신적 특성과 함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애 신체’, ‘장애 사회적’, ‘사회적 약자’와 같은 표현들이 나타나면서, 장애인을 사회 구조 속 제약을 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둘째, ‘질문 2: ‘장애 여성’ 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한 응답의 경우, ‘사회적 약자가 가장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며, ‘장애 남성’, ‘이중 차별’, ‘사회적 취약성’ 등의 표현을 통해 장애 여성이 단일한 약자라기보다는 성별과 장애가 결합된 복합적인 소외의 위치에 있다고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부 응답에는 ‘장애 성별’, ‘남성 보다’ 등의 표현도 확인되어, 남성 중심적 기준에서의 비교 시선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2-gram 단어 목록 및 빈도수

질문 1. 장애하면 떠오르는 것들		질문 2. 장애 여성하면 떠오르는 것들		질문 3.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각		질문 4.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	
2-gram	빈도 수	2-gram	빈도 수	2-gram	빈도 수	2-gram	빈도 수
신체적 정신적	6	사회적 약자	7	아이 키울	3	임신 출산	11
장애 신체	5	장애 남성	3	아이 정상적	3	문제 해결	4
장애 사회적	4	신체적 정신적	3	아이 낳아	3	출산 출생	4
사회적 약자	3	이중 차별	3	정신적 장애	3	출생 문제	4
장애 신체적	3	남성 보다	3	장애 이유	3	아이 키울	2
정신적 결합	3	사회적 취약성	2	비장애인 부부	3	차별 없이	2
제약 받는	2	장애 서로	2	2세	2	작은 단점	2
사회적 배제	2	결혼 출산	2	발달 환경	2	출산 포기	2
사회 제도	2	남성 약자	2	권리 보장	2	우리 사회	2
겪는 어려움	2	경우 많다	2	지적 장애	2	권리 보장	2
도움 필요한	2	약자 장애	2	놓여있고 부모	2	지원이 이루어져야	2
개인 문제	2	장애 성별	2	정상적 발달	2	출산 정부	2
선천적 후천적	2	장애 신체적	2	장애 종류	2	출산 장려	2
장애 정신	2	약자 위치	2	장애 유전	2	처우 개선	2
후천적 장애	2	장애 약자	2	맞지만 현실적	2	정상 가족	2

셋째, ‘질문 3: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응답의 경우, ‘아이 키울’, ‘아이 정상적’, ‘정신적 장애’, ‘유전 가능성’ 등이 주로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장애 여성의 출산을 긍정적인 생애과정으로 보기보다는, 기능적 능력이나 결과적 위험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장애인 부부’, ‘권리 보장’ 등의 표현은 출산을 개인의 권리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판단과 조건적 수용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질문 4: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응답의 경우, ‘임신 출산’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문제 해결’, ‘출산 출생’, ‘출생 문제’, ‘권리 보장’ 등의 표현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장애 여성에 대한 출산 지원 논의가 현실적인 정책 개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출산 정부’, ‘정상 가족’, ‘작은 단점과 같은 표현의 경우,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사회적 편견 해소, 구조적 장벽 개선, 인식 개선을 포함한 다층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 3.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감성분석 결과

감성 분석은 텍스트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주관적인 단어와 문맥을 기반으로 감성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메시지의 감정적 어조가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해당 질문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질문 1: '장애' 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한 응답의 경우, 부정적 정서가 83.9%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 프레임 안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질문 2: '장애 여성'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한 응답의 경우, 부정 정서가 85.5%로 '질문 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두 교차된 정체성이 장애 단독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6)</sup>

표 3.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2-gram 단어 목록 및 빈도수

질문 1. 장애하면 떠오르는 것들		질문 2. 장애 여성하면 떠오르는 것들		질문 3.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각		질문 4.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	
감성분석 분류	빈도 수(%)	감성분석 분류	빈도 수(%)	감성분석 분류	빈도 수(%)	감성분석 분류	빈도 수(%)
긍정적	8(14.5)	긍정적	7(12.9)	긍정적	12(19.4)	긍정적	8(14.5)
부정적	52(83.9)	부정적	53(85.5)	부정적	39(62.9)	부정적	47(72.6)
중립적	2(1.6)	중립적	2(1.6)	중립적	11(17.7)	중립적	7(12.9)

셋째, '질문 3: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응답의 경우, 부정 응답이 다소 줄어 62.9%를 기록하였고, 긍정(19.4%)과 중립(17.7%) 비율이 다른 문항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의 경우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권리 등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넷째, '질문 4: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응답의 경우, 부정 정서는 다시 약간 증가하여 72.6%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제도적 미비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4가지 문항 모두에서 부정 정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문항별 주제에 따라 정서 분포가 일정 부분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 4. TF-IDF 분석 결과

TF-IDF 분석은 메시지 내에서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단순한 빈도수보다 해당 질문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등장한 단어를 보여주며, 질문마다 특징적인 단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질문 1: '장애' 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한 응답의 경우, '결합', '불편함', '약자', '차별', '제약' 등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장애'라는 단어에 대해 응답자들이 사회적 제약, 신체적 결합, 불편한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렸음을 보여준다. 특히 '결합'이라는 단어는 신체적 정신

6) 다만, 이 연구의 감성분석에서 분류된 '부정 정서'는 곧바로 장애 또는 장애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거부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응답에 포함된 '차별', '취약', '도움', '보호', '연민' 등의 표현은 장애 여성 개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기보다, 이들이 처한 구조적 불평등과 열악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 우려, 공감의 정서를 함께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질문 1과 질문 2에서 나타난 높은 부정 정서는 '편견적 인식'과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공감적 반응'이 혼재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감성의 방향성만으로 두 정서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질문 2: ‘장애 여성’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한 응답의 경우, ‘약자가 가장 높은 TF-IDF 값을 보였고, 이어서 ‘차별’, ‘출산’, ‘결합’, ‘성별’ 등의 단어가 나타났다. 이는 ‘장애 여성’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복합적 약자성, 젠더적 차별, 생식권 이슈가 함께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미지’, ‘취약’, ‘보호’ 등의 표현은 장애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시선도 포함되어 있음을 추론하게 해준다.

표 4. 질문 1~질문 4에 대한 TF-IDF(단어빈도-역 문서 빈도)

질문 1. 장애하면 떠오르는 것들		질문 2. 장애 여성하면 떠오르는 것들		질문 3.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각		질문 4.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	
단어	TF-IDF	단어	TF-IDF	단어	TF-IDF	단어	TF-IDF
결합	0.06	약자	0.09	아이	0.06	출생	0.10
불편함	0.05	차별	0.06	지원	0.03	출산	0.08
약자	0.04	출산	0.04	도움	0.03	지원	0.05
차별	0.04	결합	0.03	양육	0.03	임신	0.05
제약	0.04	성별	0.03	유전	0.03	아이	0.04
배려	0.03	도움	0.03	자유	0.03	배제	0.03
편견	0.03	취약	0.02	비장애인	0.02	도움	0.02
소외	0.02	이미지	0.02	힘들	0.02	출산율	0.02
연민	0.02	보호	0.02	존중	0.02	가정	0.02
도움	0.02	결혼	0.02	정책	0.02	실질적	0.02
개인	0.02	안쓰러	0.02	지적	0.02	은유	0.02
불편한	0.02	연민	0.02	우려	0.02	비장애인	0.02
장벽	0.02	이라하면	0.02	반대	0.02	포용적	0.02
차별적	0.02	현실	0	지원이	0.02	보호	0.01
불편함으로	0.02	존엄		긍정적	0.02	장려	0.01

셋째, ‘질문 3: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응답의 경우, ‘아이’, ‘지원’, ‘도움’, ‘양육’, ‘유전’이 상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여성의 출산을 ‘아이 양육의 가능성과 한계’, 또는 ‘유전과 같은 생물학적 우려와 연결짓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 ‘존중’, ‘정책’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응답자들이 출산을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도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질문 4: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응답의 경우, ‘출생’, ‘출산’, ‘지원’, ‘임신’이 중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실질적’, ‘포용적’, ‘정부’, ‘가정’ 등의 단어가 등장하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장애 여성의 출산을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상 가족’, ‘차별 없이’, ‘은유’ 등의 단어는 장애 여성에 대한 정상성 프레임과 은유적 표현 사용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 5. 성별 간 빈도분석 결과 비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양성평등 정책 수용에서의 남녀 차이(이소연, 2025; 이준균, 2021)가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장애 여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성별 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표 8>과 같다. 먼저, <표 5>에서 보듯이 ‘질문 1: ‘장애’ 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한 응답에서 여성 응답자의 경우 ‘차별’, ‘불편함’, ‘제약’, ‘배려’와 같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감정적 반응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차별’은 7회 언급, 전체 응답의 약 2.86%를 차지할 만큼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반면 남성 응답자에서는 ‘결합’, ‘가시적’, ‘배려’, ‘배제’ 등 여성과 일부 유사한 키워드도 나타나고 있지만,

‘도움’, ‘편견’, ‘손상’ 등 보다 중립적이거나 개인적 인식이 포함된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해당 단어를 언급한 응답자 수’인데, 여성 응답의 경우 동일한 단어가 여러 응답자에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남성 응답의 경우 빈도는 유사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낮거나 분산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여성 집단 내에서 장애에 대한 공통된 문제 인식이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표 5>에서 보듯이 ‘질문 2: 장애 여성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한 응답에서 여성 응답자의 경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약자로, 총 13회 등장했으며 12명이 이 단어를 언급하였다. 이어서 ‘차별’, ‘출산’, ‘이미지’, ‘취약’, ‘성별’ 등의 단어들이 상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사회적 위치, 제약된 환경, 인식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등장하였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약자’, ‘차별’, ‘출산’ 등의 단어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긴 하였으나, 응답 분포를 보면 특정 단어에 집중되기보다는 다양한 단어들이 비교적 낮은 빈도로 고르게 등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움’, ‘상대적’, ‘자유롭다’, ‘일반인’, ‘의존’ 등의 단어는 각자의 해석이나 판단에 기반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체적으로 여성 응답은 유사한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언급된 반면, 남성 응답은 개별적인 표현들이 폭넓게 분산되어 나타났다는 차이가 있다.

셋째, <표 6>에서 보듯이 ‘질문 3: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응답에서 여성 응답자의 경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아이로, 총 25회 등장하며 14명의 응답자가 이 단어를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유전’, ‘도움’, ‘비장애인’, ‘지원’, ‘양육’ 등의 단어가 주로 등장했으며,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현실적 고민과 사회적 지원 필요성이 응답 전반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자유’, ‘의자’, ‘우려’ 등의 표현은 개인의 선택과 그에 따른 감정적 부담을 함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남성 응답자 역시 ‘아이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지만 빈도는 여성 응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거부감’, ‘정책’, ‘부정적’, ‘행복’, ‘사랑’ 등 개인적 감정이나 가치 판단이 담긴 단어들이 주로 언급되었고, 다양한 입장이 분산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여성 응답은 구조적 제약과 생물학적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반면, 남성 응답은 정서적 반응이나 개별 판단 중심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표 6>에서 보듯이 ‘질문 4: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응답에서 여성 응답자의 경우 ‘출생’, ‘출산’, ‘임산’, ‘지원’, ‘아이’ 등 출산과 양육 과정 전반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며, 다수 응답에서 현재 저출산 정책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장애 여성에 대한 포용적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남성 응답자도 ‘출산’, ‘출생’, ‘임산’, ‘지원’ 등 유사한 단어를 언급하며 전반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고, 일부 응답에서는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확인되었다. 두 집단 모두 장애 여성의 출산권과 정책 접근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정책의 포용성과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었다.<sup>7)</sup>

7) 다만 이러한 성별 간 차이는 이 연구에서 수집된 제한된 배경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한 탐색적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사실, 성별 말고도 장애인과의 직접적 접촉 경험, 장애 관련 강의 또는 인식개선교육 수강 여부, 가족 내 장애 경험, 전공 및 진로 관심 등은 장애와 장애 여성에 대한 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함께 수집 분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 확인된 차이를 성별 자체의 효과로 단정하기보다는 성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화 경험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5. '질문 1'과 '질문 2'의 성별 응답을 비교한 빈도분석 결과

질문 1. 장애하면 떠오르는 것들								질문 2. 장애 여성하면 떠오르는 것들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단어	언급된 총 횟수	비율	언급 응답자 수	단어	언급된 총 횟수	비율	언급 응답자 수	단어	언급된 총 횟수	비율	언급 응답자 수	단어	언급된 총 횟수	비율	언급 응답자 수
차별	7	2.86	7	결함	3	2.78	3	약자	13	6.19	12	약자	6	6.19	4
불편함	5	2.04	5	가시적	2	1.85	1	차별	7	3.33	6	차별	4	4.12	4
제약	5	2.04	4	배려	2	1.85	2	출산	5	2.38	5	도움	4	4.12	3
배려	5	2.04	3	배제	2	1.85	2	이미지	4	1.9	4	출산	3	3.09	2
소외	3	1.22	3	제약	2	1.85	2	취약	4	1.9	3	결함	2	2.06	2
약자	3	1.22	3	도움	2	1.85	2	성별	4	1.9	4	상대적	2	2.06	2
결함	3	1.22	3	불편함	2	1.85	1	소외	2	0.95	2	자유롭다	1	1.03	1
개인	2	0.82	2	약자	2	1.85	2	정체성	2	0.95	1	임신	1	1.03	1
배리어 프리	2	0.82	2	편견	2	1.85	2	제약	2	0.95	2	일반인	1	1.03	1
안타깝다	2	0.82	2	손상	2	1.85	1	취약성	2	0.95	1	의존	1	1.03	1

표 6. '질문 3'과 '질문 4'의 성별 응답을 비교한 빈도분석 결과

질문 3.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각								질문 4.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단어	언급된 총 횟수	비율	언급 응답자 수	단어	언급된 총 횟수	비율	언급 응답자 수	단어	언급된 총 횟수	비율	언급 응답자 수	단어	언급된 총 횟수	비율	언급 응답자 수
아이	25	4.83	14	아이	5	2.98	3	출생	26	5.87	22	출산	14	6.09	11
유전	9	1.74	7	거부감	2	1.19	1	출산	21	4.74	18	출생	12	5.22	10
도움	7	1.35	7	지원	2	1.19	2	지원	13	2.93	9	아이	7	3.04	5
비장애인	7	1.35	6	정책	2	1.19	2	아이	9	2.03	7	임신	6	2.61	6
지원	7	1.35	5	낳아	2	1.19	1	임신	8	1.81	8	지원	6	2.61	5
양육	6	1.16	6	부정적	2	1.19	2	비장애인	5	1.13	4	출산율	2	0.87	2
자유	5	0.97	5	지적	2	1.19	2	양육	4	0.9	3	처우	2	0.87	1
부부	5	0.97	4	적극적	2	1.19	2	도움	4	0.9	4	부모	2	0.87	2
의지	4	0.97	3	사랑	2	1.19	2	육아	3	0.68	3	도움	2	0.87	2
우려	4	0.97	4	행복	2	1.19	1	출산율	3	0.68	2	보호	2	0.87	2

## V.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이하의 논의는 단순히 텍스트마이닝 결과를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사회적 재생산, 정상가족 및 생명정치, 교차성 이론, 그리고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와의 연계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이 연구에서 확인된 '약자', '차별', '취약', '보호', '유전', '정상 가족', '권리 보장' 등의 언어는 개별 응답의 단편적 표현이 아니며, 장애 여성을 재생산과 돌봄의 주체로 보기보다 관리와 보호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사회적 담론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① 장애를 결핍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결핍/시혜 담론, ② 장애와 젠더의 결합을 통해 중첩된 불리함을 구성하는 교차적 취약성 담론, ③ 장애 여성의 출산을 유전·양육능력·정상가족 기준으로 평가하는 정상성/우생학적 판단 담론, ④ 권리 보장과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는 권리·지원 전환 담론의 네 축 속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 1. ‘장애’하면 떠오르는 것들: “개인적 결함” vs. “사회적 제약”

1) 첫째 단어 빈도 및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반응은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자 사회적 제약의 원천으로 보는 관점(예: 불편함, 제약 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태도 및 반응(예: 배려, 차별, 편견, 배제 등) 사이에서 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를 단순한 ‘개인적 한계’로 보던 과거와 달리, 점차 사회적 책임과 제도적 환경의 문제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불편함’과 ‘제약’이라는 단어가 최상위에 있다는 점에서, 장애를 여전히 정상성의 결핍으로 전제하는 시선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도 생각해야 한다. 또한, ‘결함’, ‘약자’, ‘소외’ 등의 단어들은 점차 ‘사회적 장애(social disability)’ 개념으로 인식이 이행되고 있는 과도기적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같은 표현의 빈도는 동정이나 시혜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움’은 배려와 유사한 맥락에서 장애인을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불편함’, ‘개인’은 장애가 정상적인 사회 관계 안에서 낯설거나 거러감 있게 받아들여지는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는 등 장애를 ‘같이 살아가는 이웃’이라기보다, ‘관리하고 돕는 대상’으로 규정하는 시선이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둘째 2-gram 분석 결과, ‘장애’ 인식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장애 신체’와 ‘장애 사회적’이 동시에 등장하는 등 장애를 개인 결함과 사회적 제약 사이에서 이해하는 이중 프레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모델과 사회모델이 공존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해준다. ‘신체적·정신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맥락에서 장애를 다차원적 특성으로 보되, 여전히 기능 결핍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장애 사회적’, ‘사회적 약자’는 장벽·차별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의 확산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으로 ‘배려’ 중심 담론은 시혜적 비대칭을 강화하여 권리·접근성 논의를 뒷전으로 밀리게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3) 셋째 감성 분석 결과, ‘장애’라는 추상 범주에선 사람들은 익숙한 의료·결핍 프레임(불편, 제약, 결함)을 자동 호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 구체적 맥락이 없을수록 정서적 선입견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으므로 범주 일반화 효과로 인해 높은 부정 인식이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4) 넷째 TF-IDF 분석 결과, ‘장애’의 경우 ‘불편함·제약·약자·차별’이라는 단어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부담으로 인식하는 의료모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장애 사회적’은 차별·장벽 등 환경 요인을 지목하는 사회모델 인식의 단서로서 의료모델 고착과 사회모델의 단서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다섯째 성별 간 빈도분석 비교 결과, ‘장애’의 경우 여성 응답자는 ‘차별·불편함·제약·배려’ 단어를 상위에 위치시키고 있는데, 장애를 사회 구조가 만든 제약으로 읽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결핍 프레임), ‘차별’의 높은 반복(7회/2.86%)은 경험적·관찰적 근거가 공유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남성 응답자는 ‘결함·가시적·배려·배제’ 외에 ‘도움·편견·손상’ 등 중립/개인 체감형 어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장애를 개인 상태/특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불편함’, ‘제약’, ‘결함’, ‘약자’, ‘차별’, ‘도움’, ‘보호’, ‘이미지’ 등의 표현은 장애와 장애 여성을 독립적 시민이나 권리 주체라기보다 결핍을 가진 존재, 혹은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호명하는 담론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재생산 이론과 정상가족 프레임에서 지적하듯, 특정한 몸만이 정상적 노동과 돌봄, 재생산의 주체로 인정되고 그 밖의 몸은 예외적 존재로 분류되는 구조와 맞닿아 있다.

## 2. ‘장애 여성’하면 떠오르는 것들: “중첩된 불평등” vs. “약자 프레임과 동정의 고착”

1) 첫째 단어 빈도 및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장애 여성의 경우 ‘장애’와 ‘여성’이라는 두 가지 교차되는

정체성이 각각 단일한 낙인의 합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중첩된 불평등을 경험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생각하게 해준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가 ‘약자’라는 점은, 응답자들이 장애 여성을 구조적 약자 또는 다중적 소외 계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장애인이나 여성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이 아닌, 교차적 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내면화되어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장애 여성을 보호 대상이나 비주류적 존재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능동적 권리 주체로 바라보는 데 한계가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차별’은 장애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배제 경험을 상기시키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약자’와 함께 자주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단어는 구조적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즉, 장애 여성은 ‘차별받는 사람’으로 사회적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단순한 시혜나 지원 중심에서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출산’이라는 단어의 경우 정상성 담론과의 긴장을 반영하는데, 장애 여성의 출산은 사회적으로 불편하거나 비정상적인 일로 간주될 수 있는 인식이 존재함을 시사하며, 이는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과 연결해 볼 때 ‘누가 출산할 수 있고 누가 할 수 없는가’에 대한 통제적 시선이 장애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도움’은 장애 여성을 자립적 존재가 아닌 수혜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성별’은 단순히 장애보다 ‘여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의 영향도 고려하고 있음을, ‘이미지’는 장애 여성에 대한 고정된 사회적 상(social image)이 존재함을 암시하는 등 장애 여성은 주체가 아닌 객체로, 능동적 시민이 아닌 타자화된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추론하게 해준다.

2) 둘째 2-gram 분석 결과, 장애 여성 인식의 경우 ‘사회적 약자’, ‘이중 차별’, ‘사회적 취약성’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 여성이 장애×젠더가 겹치는 복합 차별의 대상으로서 교차적 취약성의 인지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장애 남성’, ‘남성 보다’라는 단어 조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남성 규범 대비의 비교 시선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교차적 취약성 인지가 보호주의로 기울면 주체성이 약화될 수 있음도 동시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3) 셋째 감성 분석 결과, ‘장애+여성’은 단일 낙인보다 복합 낙인(예: 취약성, 보호대상화, 성·재생산 통제)이 중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남성 기준 비교(“남성보다...”)가 존재하며 규범적 정상성 잣대가 강화되어 교차성의 가중효과로 인해 더 높은 부정 정서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부정 정서에는 장애 여성에 대한 편견적 인식뿐 아니라, 이들이 처한 중첩된 차별과 취약한 사

회적 조건에 대한 우려와 공감의 함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8)</sup>

4) 넷째 TF-IDF 분석 결과, ‘장애 여성’의 경우 ‘약자’, ‘차별’, ‘성별’, ‘출산’이라는 단어는 장애×젠더가 만드는 복합 차별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지.취약.보호’는 ‘대상화·의존적 존재’로 고정할 위험을 내포하는 등 교차적 취약성의 인지와 대상화의 위험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장애 남성’, ‘남성 보다’라는 단어는 남성 규범 대비 비교 시선을 드러내고 있어 정책·커뮤니케이션에서 성인지적 설계와 ‘남성 기준’ 탈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다섯째 성별 간 빈도분석 비교 결과, ‘장애 여성’의 경우 여성 응답자는 ‘약자’(13회/12명), ‘차별.출산.이미지.취약.성별’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장애×젠더 교차 취약성을 구조적으로 인지하고, 대상화 위험(‘이미지’, ‘보호’)에 대한 경계도 내포하고 있는 듯 보인다. 반면 남성 응답자의 경우 ‘약자.차별.출산’을 언급하되 ‘도움.상대적.자유롭다.일반인.의존’ 등 개별 판단형 어휘가 넓게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약자’,

8) 이러한 맥락에서 높은 부정 정서를 모두 장애 여성 자체를 향한 편견적 태도로만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약자’, ‘차별’, ‘취약’, ‘도움’, ‘보호’ 등의 표현은 한편으로는 장애 여성을 수동적·의존적 존재로 대상화하는 보호주의를 내포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첩된 차별과 구조적 배제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공감의 반응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감성분석 결과는 장애 여성에 대한 단순한 적대나 편견이라기보다, 편견·동정·보호주의·공감·구조적 우려가 뒤섞인 복합 정서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 ‘이중 차별’, ‘사회적 취약성’, ‘남성 보다와 같은 표현이 함께 출현한 것은 장애 여성이 단순한 ‘여성’이나 ‘장애인’이 아니라, 젠더와 장애가 교차하면서 독자적인 불리함을 경험하는 존재로 표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표현이 단순한 인식 서술이 아니라, 장애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주체보다 지원과 관리의 대상으로 먼저 호명하는 사회적 언어 습관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결과는 장애를 개인의 기능적 결핍이나 불완전성으로 환원하는 전통적 장애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장애 여성의 경우 그 위에 젠더 규범이 중첩되면서 보다 복합적인 낙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교차성 이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장애 여성이라는 집단이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두 범주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배제와 사각지대를 경험하는 집단이라는 점과 맞닿아 있다. 또한 Gill(1996)과 Shakespeare(2006)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 여성은 연애·결혼·출산의 주체라기보다 과잉보호되거나 성적 주체성이 부정된 존재로 호명되기 쉽다. 이 연구에서 ‘약자’, ‘도움’, ‘보호’, ‘이미지’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이러한 대상화된 인식이 오늘날 대학생 집단의 언어 속에서도 일정 부분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3.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각: “재생산권의 조건부 수용” vs. “유전·정상성 프레임”

1) 첫째 단어 빈도 및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경우 제시된 단어 빈도는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서를 다양한 관점에서 드러내며,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시선이 여전히 이중적이고 조건적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아이’라는 점은,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을 개인의 선택이나 권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이를 중심으로 한 결과 중심 사고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장애 여성의 양육 능력, 아이의 건강, 사회적 비용 부담 등에 초점이 맞춰진 시선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권리’가 아닌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아이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평가되며, 이는 장애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생산성’과 ‘책임성’을 먼저 묻는 시선이 우세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유전’ 및 ‘지원’과 같은 단어들의 경우 유전적 전이를 걱정하거나 부정적으로 연관 짓는 경우로서 장애를 질병 또는 부정적 특성으로 바라보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내포한다고도 할 수 있으며 출산이나 양육에 있어 공공적 개입과 보조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출산 자체에 대한 판단이 ‘유전적 문제’ 또는 ‘정상성의 유지’라는 시각에서 접근되어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에서 말하는 인구의 질 관리 개념과도 유사한 통제적 사고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비장애인과의 비교는 장애 여성의 재생산이 ‘정상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있으며 양육, 도움은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능력, 사회의 책임 분담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비장애인’, ‘양육’, ‘도움’이라는 단어의 경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와 ‘비장애 중심주의’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장애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건 자유지만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능력주의적 잣대로 평가되고 있어 재생산권을 선택이 아닌 조건부 권리로 제한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개인의 선택과 주체성에 주목한 응답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유’, ‘의지’, ‘존중’이라는 단어의 경우 장애 여성의 권리적 관점과 자율성을 언급한 긍정적 표현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는 소수 의견이며, 전체적으로는 ‘아이의 미래’, ‘사회적 부담’, ‘유전’ 등의 요소가 개인의 재생산권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둘째 2-gram 분석 결과,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경우 ‘아이 키울’, ‘아이 정상적’, ‘유전 가능성’, ‘비장애인 부부가 등장하고 있다는 의미는 출산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정상성 심사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으로 재생산권의 조건부 수용을 생각하게 해준다. ‘권리 보장’도 등장하여 권리 담론의 씨앗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단어 조합은 우생학적 불인과 능력주의가 장애 여성의 출산 판단에 개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유전·정상

성 프레임은 의료적 게이트키퍼와 낙인 심화로 연결될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셋째 감성 분석 결과, 셋째, 임신·출산이라는 구체적 선택 상황이 제시되면 일부 응답자는 자기결정권·존중을 떠올릴 수 있으며, 권리·관계 맥락이 제시되어 부정인식이 감소하고, 중립·긍정 인식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전 가능성, 양육능력’ 등 능력주의·우생학적 우려가 여전히 공존하므로 완전한 전환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4) 넷째 TF-IDF 분석 결과,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의 경우 ‘아이·양육 지원·도움’ 중심의 단어는 출산을 권리보다 사후 책임·부담의 렌즈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또한 ‘유전’이라는 단어가 상위권에 등장하면서 생물학적 전이 우려가 재생산권 판단에 개입(우생학적 프레임 위험)하려는 모습과 함께 ‘자유·존중·정책’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출현함으로써 자기결정·권리 관점이 일부 확산되는 등 권리 담론의 진입이 시도되고 있으나 능력주의·우생학적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나타나는 듯 보인다.

5) 다섯째 성별 간 빈도분석 비교 결과,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의 경우 여성 응답자는 ‘아이’(25회/14명), ‘유전·도움·비장애인·지원·양육·자유·의지·우려’라는 단어가 나타남으로써 양육의 현실과 지원이 필요하며, 자기 결정과 감정 부담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었다. 반면 남성 응답자의 경우 ‘아이가 1위지만 빈도가 낮으며, ‘거부감·정책·부정적·행복·사랑’ 등 정서적·가치판단형 표현이 다채롭게 분산되어 나타나는 것이 차이가 있다.

특히 질문 3에서 ‘아이’, ‘유전’, ‘양육’, ‘우려와 함께 ‘자유’, ‘존중’, ‘권리 보장’이 동시에 등장한 것은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면적 승인’이라기보다 ‘조건부 수용’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황지성(2011)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생산권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몸과 어떤 가족이 재생산의 주체로 인정되는가를 둘러싼 정치의 문제임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또한 신유리, 김정석(2020)이 제시한 장애 여성의 여성성과 친밀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거부의 경험은, 이 연구에서 나타난 ‘유전’, ‘정상성’, ‘양육 가능성’ 중심의 언어와 맞물리며 여전히 장애 여성의 출산이 무조건적 권리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능력과 정상성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허용되는 평가와 심사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은 개인의 자기결정으로 존중된다고 말해지면서도 실제로는 정상가족 규범과 능력주의적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승인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장애 여성의 출산은 여전히 생물학적 위험성과 양육 수행 가능성을 둘러싼 평가의 대상이며, 정상가족 규범과 생명정치적 통제가 오늘날에도 언어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저출산 정책과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 “임신~양육 전 주기개입” vs. “도구화 위험”

1) 첫째 단어빈도 및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출산과 출생’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다는 것은, 응답자들이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을 임신과 출산의 과정 자체로 좁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 여성도 출산할 수 있는 존재임을 조건부로 인정하지만, 여전히 이 출산이 개인의 권리이기보다 국가의 출생률 증가와 연계된 도구적 가치로 여겨질 가능성이 클 수 있으며, 이는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에서 말하는 ‘생산 가능한 생명’에 대한 국가의 관리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원’, ‘도움’, ‘보호’ 등의 단어는 장애 여성의 출산이 사회적 지원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단순히 출산을 권리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수라는 인식과 동시에 장애 여성을 수동적 존재로 간주하거나 시혜적 태도를 내포할 위험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배제’, ‘비장애인’, ‘편견’이라는 단어의 경우 응답자들이 장애 여성이 비장애 여성과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사회적 편견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복지정책이 실질적으로 포용적이지 않으며, ‘정상성’에 맞지 않는 출산은 배제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출산율’, ‘가정’, ‘부모’라는 단어의 경우 장애 여성의 출산이 개별 주체의 권리가 아닌 국가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저출산 해소라는

목표하에 장애 여성을 정상 가정의 재생산 주체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도구화 가능성과 함께 장애 여성의 삶을 그 자체로 존중하기보다, 국가가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간주하는 생명정치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해준다.

2) 둘째 2-gram 분석 결과, ‘저출산 정책과 장애 여성 지원의 경우’ 문제 해결, ‘출산 정부’, ‘권리 보장’, ‘지원이 이루어져야’가 자주 등장하는데, 정부 개입 요구가 높지만, 저출산 해법의 수단으로 장애 여성을 대하는 도구화 위험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상 가족’, ‘작은 단잠의 단어 조합은 장애 여성을 출생지표 개선 수단으로만 포지셔닝할 위험, 가족 규범의 잔재를 해소하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책 기대와 도구화의 긴장감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셋째 감성 분석 결과, ‘정부 지원이 언급되면 형평성·세금·우선순위 프레임이 즉시 활성화되면서 제도 미비 경험, 행정 신뢰 부족, ‘정상가족’ 규범이 맞물려 회의·경계 정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정책·재정 프레임으로 인해 부정인식이 재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다.

4) 넷째 TF-IDF 분석 결과, ‘저출산 정책 속 장애 여성 지원의 경우’ 출생·출산·지원·임산이라는 단어는 임신·양육 전 주기 정책 개입에 대한 명시적 요구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포용적·정부·가장’이라는 단어는 실효성·포용성·국가책임을 기대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상 가족’ 언급은 여전히 정상성 규범이 판단 잣대로 작동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다양한 가족 전제의 정책 언어와 설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다섯째 성별 간 빈도분석 비교 결과, ‘저출산 정책과 장애 여성 지원의 경우’ 여성 응답자의 경우 ‘출생·출산·임산·지원·아이’ 단어와 함께 현 정책의 비장애인 중심성을 비판하는 등 포용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남성 응답자 역시 유사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어 전 주기에 대한 개입은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장애 여부로 차별 없이와 같은 보편주의 원칙도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4에 대한 분석 결과는 중요한 전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질문 4에서 확인된 ‘출생’, ‘출산’, ‘임산’, ‘지원’과 같은 직접적 정책 언어뿐 아니라 ‘실질적’, ‘포용적’, ‘권리 보장’이라는 표현을 통해 장애 여성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재생산과 양육의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재위치시키려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는 기존의 보호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권리 기반 지원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동시에 ‘보호’, ‘정상 가족’, ‘배제’와 같은 표현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은, 이러한 전환 담론이 아직 완전히 독립된 권리 언어로 정착했다기보다 기존의 시혜·보호 담론과 긴장 속에서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교차성 없는 정책의 경우, 가장 취약한 집단을 놓칠 수 있다는 Mac-Seing et al.(2020)의 지적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LaLiberte & Lightfoot(2013)가 보여준 바와 같이, 장애 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장애정책, 모자보건정책, 아동복지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실질적’, ‘맞춤형’, ‘포용적’ 지원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적 분절과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장애 여성 관련 정책 인식이 ‘지원의 확대’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누가 출산과 양육의 정당한 주체인가에 대한 사회적 재정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VI. 결론: 연구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이 연구는 미래 정책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대학생 집단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여 개방형 설문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장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단어 빈도와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장애와 장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약, 차별, 우려, 지원 필요성, 권리 보장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2-gram 분석 결과,

핵심은 '전달할 지원'이 아니라 '보장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을 여전히 능력·정상성의 잣대로 평가하는 경향과 동시에 다층적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저출산 정책 속 장애 여성은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차성 기반 전 주기·권리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감성 분석 결과, 높은 부정 정서가 나타났으나 이는 단순한 적대나 편견이라기보다 구조적 프레임(예: 결핍·정상가족·능력주의)과 열악한 환경에 대한 공감기 위취인 복합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임신·출산 맥락의 권리·자기결정 서사는 부정을 완화하는 유효한 진입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권리·접근성·교차성을 중심에 둔 전주기 정책과, 그에 맞는 프레이밍 전환 커뮤니케이션이 병행될 때 부정 정서를 줄이고 실제 이용률·만족도·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넷째, TF-IDF 분석 결과, '배려/보호/예외'가 아니라 '권리/접근성/합리적 편익'로 언어와 제도를 재설계해야 부정 정서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장애 여성의 경우 출산율 제고의 수단이 아니라 재생산권 보장이 1차 목표이고, 그 결과가 인구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는 2단계 내러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성별 간 빈도분석 비교 결과, 여성은 주로 구조·제도 중심(차별, 제약, 배제, 지원 필요)의 키워드가 여러 응답자에게 반복되게 나타나 공통 문제의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남성은 개인·정서 중심(도움, 편견, 손상, 거부감/행복 등 상반 정서 공존)의 키워드가 넓게 분산되어 나타나 통일된 문제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문적으로 볼 때, 이 연구는 기존 질적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장애 여성의 낙인, 무성화, 과잉보호, 재생산권 제한, 교차적 배제의 문제를 대학생 집단의 개방형 응답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제기된 사회적 재생산, 정상가족 규범, 생명정치, 교차성의 문제들이 실제 사회 인식의 언어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물론 이 연구는 대학생 집단의 인식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담론의 구조를 탐색한 연구이므로, 개별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직접 검증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차별·취약성·권리 보장·실질적 지원 요구의 언어는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과 정책 전환의 방향을 시사하는 기초 자료로서 의미를 갖으며, 향후 세밀한 양적 연구를 위한 실증적 가설과 언어적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정책적 함의 측면에서 볼 때 텍스트마이닝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차별', '약자', '사회적 취약성', '유전', '양육', '정상 가족', '권리 보장', '실질적', '포용적' 등의 표현이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을 둘러싼 위협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담론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출발해 본다면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육아를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문제로 재구성하는 것, 임신·출산뿐 아니라 양육까지 포함하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설계하는 것, 장애와 젠더가 교차하는 특수한 제약을 반영한 맞춤형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배려/정상성'에서 '권리/접근성·교차성'으로의 언어적 패러다임 전환이다.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을 조건부 '자격'이 아닌 보편 '권리'로 수용하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도와준다/보호한다'보다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정상/비정상' 대비 대신 '다양한 가족·다양한 능력' 프레임을 사용하는 등 언어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혼인·가족 형태·장애 유형·성별 등으로 '선별하지 말고, 기능·상황·돌봄 필요도를 축으로 정책 대상을 규정하고 ① 접근권(정보·물리·의사소통), ② 합리적 편익(보편 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③ 차별 금지(서비스 거부·지연 제재) 등을 원칙으로 하여 모든 통계와 제도 설계·평가에 장애×젠더×가족형태×소득×지역 축을 기본값으로 내장하여 교차성을 표준화·가시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저출산 목표와 권리 보장의 균형이다. 장애 여성 지원을 출산율 수단으로만 제시하면 부정적 인식이 상승할 수 있다. '저출산 해법'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선택할 권리' 등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편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 서비스(보건소, 산모·신생아 서비스, 보육)를 접근성 표준으로 개편하고, 보정적인 측면에서 장애·비혼·저소득·이주 등 교차적 위협에 가산 모듈(현금+현물+시간권)을 엮는 레이어드 구조를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데이터와 증거 기반의 구체적 서비스

연계이다. 예를 들어 산전·산후 통합 케어, 접근가능 병원 목록, 돌봄·보육 가산, 가정방문·야간돌봄, 의사소통·동행 지원 등 구체 서비스를 즉시 연계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는 등 데이터와 증거 기반으로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정 정서를 줄이는 증거로서 장애×젠더×가족형태×지역별로 접근률·대기시간·서비스 이용률을 월별로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보편서비스의 접근성 표준화 및 장애유형별 맞춤 패키지 도입이다. 장애 여성에 필요한 보편서비스의 접근성을 표준화(물리·정보·의사소통 접근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장애유형×생애주기 맞춤 패키지(임신전 상담→임신·출산→산후 양육)를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예외 혜택이 아니라 보편제의 접근성 결손을 보정한다는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대중의 우생학적 우려나 양육 부담·담론 이전에, 모성 이환율, 임신성 고혈압, 조산 등 실질적인 고위험 산과적 관리가 직결된 시급한 임상적 과제이다. 따라서 단순한 권리 선언이나 보편적 모자보건 서비스로의 편입을 넘어, 고위험 산모·태아에 대한 초전문적 의료 대응과 산전·산후 여성 재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특화된 의료·재활 연계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신 전에는 비강제적 프리컨셉션 상담(정보결정권 보장), 정신건강 1차 스크리닝, 폭력·차별 신고 경로를 안내하고 임신·출산과정에서 접근성 인증 병원(물리·정보·의사소통 접근성, 수어/문자통역, 보호자·동행 지원), 통합 케어 코디네이터(예: 보건·복지·법률·고용 연결, '한 사람 창구'), 비차별 진료 프로토콜(예: 유전·정상성 잣대에 근거한 암묵적 거절 금지), 산후·양육 과정에서 가정방문, 야간·긴급 돌봄, 보육료 가산, 이동지원, 장애 부모 도우미 상시제(시간제/정액제 선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서비스 전달체계와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원스톱 허브(지자체)로서 보건소+복지관+고용센터를 공간·데이터·인력으로 묶은 '임신·양육 통합창구'로 구성하되, 현실적인 행정망 분절을 극복하기 위한 데이터 연계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단위의 중앙 재활 거점(국립재활원 등)이 축적한 여성 장애인 재활 및 임상 가이드라인과, 지자체 보건소의 지역사회 모자보건사업 데이터가 단일 창구에서 교차 조회될 수 있는 통합 정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앙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지역사회의 전달체제로 매끄럽게 흘러가도록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고, 장애 여성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정책자문패널 상시 운영함으로써 정책설계를 함께 해나가는 등 제도화하며, 평가와 재계약과 연동하여 위탁기관·병원에 접근성·비차별 준수 의무를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다양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진다. 첫째, 특정 지역/대학에 국한된 표본에서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타 연령층 및 사회집단 간 인식 차이를 비교하거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사회 담론의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성사전의 한계로 인한 오분류 가능성과 형태론적 오류 등으로 인한 여러 분석의 한계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뉴스 댓글, 유튜브 댓글 등 비자발적 응답 분석과의 통합 연구,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인식 변화 연구,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시도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sup>9)</sup> 셋째,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응답은 한 두 문장이나 단어 나열식이라 단어 간 통계적 관계를 찾아내기 어려웠는데, 향후 담론 유형을 구조화하고 정책 대상별 세분화 전략제안이 가능하도록 보다 정교한 설문조사 설계와 응답을 통해 단어 간의 잠재적 의미 그룹을 찾아내는 LDA(잠재 디리클레 할당) 토픽 모델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는 응답자의 배경변수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성별 이외에 학년,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 장애인식 개선교육 수강 여부, 가족 또는 지인의 장애 경험, 전공 계열, 관련 봉사활동 경험 등은 장애 및 장애 여성에 대한 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구조화

9) 특히 사전 기반 감성분석은 텍스트에 나타난 부정 어휘를 일괄적으로 부정 정서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정서가 장애 여성 자체에 대한 편견과 거부를 의미하는지, 혹은 차별적 현실과 열악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과 공감을 의미하는지까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예컨대 '차별', '취약', '불편', '도움이 필요하다'와 같은 표현은 문맥에 따라 낙인적 인식일 수도 있으나, 구조적 배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나 공감적 반응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감성분석 결과는 정서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탐색적 지표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문장 단위 맥락분석, 수작업 코딩, 질적 면접 등을 병행하여 편견·동정·공감 권리 지지의 층위를 보다 정교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된 설문 문항을 추가하여 이러한 변수들을 함께 수집하고, 집단 간 비교 또는 회귀분석, 혼합연구 설계를 통해 어떤 요인이 인식 차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여성장애인의 재생산 건강은 초저출산 시대에 더 이상 주변화될 수 없는 핵심 의제이다. 이제는 임신과 출산에 국한된 논의를 넘어 정신건강, 양육권, 자기결정권을 포함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임상자료 기반의 연구 확대와 함께, 여성장애인의 출산율과 건강지표를 정기적으로 보고·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복지정책의 확장을 넘어,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산 및 양육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는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넘어, 초저출산 사회 속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철주는 행정학 박사(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로서 공적 영역의 감사·평가·책무성, 디지털 전환/시민 인식, 정책증거·평가·오류 등을 연구해 왔다. 교육부 소속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연구원과 고려대학교 공공감사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연곶硯畵: 사회과학 콘텐츠 프로젝트’ 대표(<https://www.youtube.com/@yeongotlabsocialsciencecon4522>)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강사로 있다. 2026년 6월부터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선발되어 연구(제목: 인공지능 자본주의 전환기 ‘사적 정부’의 부상과 민주적 통제의 재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며, 전통적 양적 연구 및 질적연구방법을 비롯, 최신 데이터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정치와 정부관료제, 디지털 전환, 플랫폼 권력, 공공서비스와 책무성,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숫자-정책-제도-사람’을 잇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큰 관심이 있다.

(E-mail: yeongot3@gmail.com)

이경주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의학·보건학 박사(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로, 여성의 생애주기 건강을 임상과 연구, 공공행정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 왔다. Harvard 의과대학 조슬린당뇨병센터 연구강사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를 역임하며 임신·출산 및 고위험 산모 관리에 대한 학술적 기반을 다졌고, 국립재활원 여성재활과장으로 재직하며 장애 여성의 건강권과 일상 회복을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장으로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 저출산 대응 및 포용적 여성건강정책을 중심으로 실증적 연구와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E-mail: drlkj4094@dongjak.go.kr)

## 참고문헌

- 강방글, 이영선. (2013).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문화적 역량: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6, 1-21.
- 박종주. (2018). “교차성 페미니스트” 김벌리 크렌쇼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여성이론*, 38, 156-168.
- 배경민. (2019). 다중적 소수자의 새로운 집짓기: 어머니의 집에서 다름의 화당까지. *영학논집*, 39, 77-91.
- 신유리, 김정석. (2020). 장애여성들의 성과 사랑, 그리고 결혼. *한국인구학*, 43(3), 55-76.
- 이경주. (2024). 여성장애인 출산과 재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저널*, 188, 24-27. <https://www.bokjitime.com/pdf/list.html>
- 이소연. (2025. 4. 22.). [2025 젠더인식조사] 우리 사회 젠더갈등 심각성 인식과 성차별 경험. *한국리서치*. 2025. 8. 10. 검색, <https://hrcopinon.co.kr/archives/32695>
- 이준균. (2021. 3. 15.). ‘경기도 20대 성차별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발표. *경기도뉴스포털*. 2025. 8. 10. 검색, [https://gnews.gg.go.kr/news/news\\_view.do?number=202103121049492343C048&rs\\_code=C048&type\\_m=main](https://gnews.gg.go.kr/news/news_view.do?number=202103121049492343C048&rs_code=C048&type_m=main)
- 이희연. (2007. 11. 20.). 우리는 ‘무(無)성적 존재가 아니다. 일다. 2025. 7. 18. 검색, <https://www.ildaro.com/4143>
- 주유선, 김기태, 김보미. (2019).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 2019-11)*.
- 하금철. (2014. 5. 27.). 장애인의 성, 무성적 존재 또는 성적과잉? 비미이너. 2025. 7. 18. 검색,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2>
- 황지성. (2011). ‘선택과 ‘권리를 넘어서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시론: 신체장애 여성의 경험에 나타난 재생산 정치. *한국장애인재단 2011 논문집*, 149-213.
- Beckett, A. (2006). *Citizenship and vulnerability: Disability and issues of social and political engagement*. Springer.
- Cambria, E., & White, B. (2014). Jumping NLP Curves: A Review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Research [Review Article]. *IEEE Computational Intelligence Magazine*, 9(2), 48-57. <https://doi.org/10.1109/MCI.2014.2307227>
- Crenshaw, K. (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6), 1241-1299.
- Crenshaw, K.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 139-167.
- Foucault, M. (2020). *성의 역사1: 지식의 의지* (이규현, 역). 제4판. 나남출판. (Original work published 1976)
- Foucault, M. (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 (심세광, 전해리, 조성은, 공역). 난장. (Original work published 1979)
- Federici, S. (2011). *캘리번과 매녀: 여성, 신체 그리고 시초축적* (황성원, 김민철, 공역). 갈무리.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Fraser, N. (2023).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장석준, 역). 서해문집. (Original work published 2022)
- Gans, H. J. (1995). *The War against the Poor: The Underclass and Antipoverty*. NY: Basic Books.
- Gill, C. J. (1996). Dating and relationship issues. *Sexuality and Disability*, 14(3), 183-190.
- Gustafson, K. S. (2011). *Cheating welfare: Public assistance and the criminalization of poverty*. New York University Press.
- LaLiberte, T. L., & Lightfoot, E. (2013). Breaking down the silos: Examining the intersection between child welfare and disability. *Journal of Public Child Welfare*, 7(5), 471-479.
- Lee, K. J. et al. (2026) *Maternal Morbidity and Neonatal Mortality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in Korea, 2013–2022*.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in press.
- Mac-Seing, M., Zinszer, K., Eryong, B., Ajok, E., Ferlatte, O., & Zarowsky, C. (2020). The intersectional jeopardy of disability, gender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Matters*, 28(2), 269-283.
- Miner, G. D., Elder, J., & Nisbet, R. (2012). *Practical Text Mining and Statistical Analysis for Non-structured Text Data*

*Applications*. <https://doi.org/10.1016/C2010-0-66188-8>

Shakespeare, T. (2006). *Disability Rights and Wrongs*. Routledge.

Shin, J. E., Cho, G. J., Bak, S., Won, S. E., Han, S. W., Lee, S. B. Oh, M. J., & Kim, S. J. (2020). Pregnancy and neonatal outcome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in South Korea. *Scientific Reports*, 10(1), 9200. <https://doi.org/10.1038/s41598-020-66181-9>

Wacquant, L. (2009). *Punishing the poor: The neoliberal government of social insecurit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Yang, L. H., Kleinman, A., Link, B. G., Phelan, J. C., Lee, S., & Good, B. (2007). Culture and stigma: Adding moral experience to stigma theory. *Social science & medicine*, 64(7), 1524-1535.

# An Analysis of Social Perceptions on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A Text Mining-Based Approach

Lee, Cheoul-Joo<sup>1</sup> | Lee, Kyung-Ju<sup>2\*</sup>

<sup>1</sup> YEONGOT: Social Science Contents Project

<sup>2</sup> Dongjak-gu Public Health Center

\* Corresponding author:  
Lee, Kyung-Ju  
(drkj4094@dongjak.go.kr)

## Abstract

This study employed a mixed-methods design, combining a survey and text mining analysis, to examine university students' social perception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In May 2025, open-ended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62 students enrolled at K Univers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text-mining techniques, including word frequency analysis, word cloud visualization, bigram (2-gram) analysis, sentiment analysis, TF-IDF analysis, and gender-based comparisons of term frequenc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social perceptions of disability and women with disabilities were largely organized around keywords such as constraints, discrimination, concern, the need for support, and the guarantee of rights. Women with disabilities were also perceived as a multiply marginalized group at the intersection of disability and gender. In particular,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were frequently evaluated through the lens of ability and norms of normalcy. At the same time, discourses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institutions and calling for multi-layered policy reforms were also evident.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a policy shift away from viewing women with disabilities merely as objects of protection or support, toward recognizing them as rights-bearing subjects with reproductive rights and full citizenship. By empirically identifying the structure of social discourse surrounding this policy target group through text mining,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o inform future rights-based welfare policies and public awareness strategies.

**Keywords:** Women with Disabilities, Text Mining, Multiple Minority Populations, Intersectionality, Reproductive Rights